13일 오후 광주시 서구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앞 도로에서 화물연대 광주지부 카캐리어분회 소속 화물차량이 운행을 중단한 다른 화물차량의 번호판을 매단 채 줄지어 서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양항 운송률 평소 14%로 '뚝'

화물연대 총파업 기아차·삼성광주공장 등 수출길 마비

화물연대 광주·전남지부가 13일 전면 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광양항 운송률이 평소의 14%대에도 못 미치는 등 광주·전남지역 기업들의 물류대란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특히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나선 이날 철도와 공항항만노조가 화물 '대체수송' 거부입장을 밝혀 물류마비 사태는 더욱 심화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전국운수산업노조 화물연대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화물연대 조합원 2천400여 명과 파업동참 의사를 밝힌 비조합원 200여 명 등 2천600여 대의 차량이 운행거부에 나섰다.

이는 광주·전남지역에서 운행하는 전체 화물차량 1만1천여 대(화물연대 추정치)의 24%에 달하는 수치로, 파업 여부를 확인하기 힘든 중·소형 개별화물차주들의 숫자를 감안하면 파업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이 화물연대 측의 설명이다.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광주·전남지역 주요 공장과 산업단지에는 비상이 걸렸다.

◇광주=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은 운송을 담당하는 기아 카캐리어분회 소속 조합원 70여 명이 파업에 돌입하면서 하루 평균 수송물량인 1천500여 대의 반출이 전면 중단됐다. 기아차 측은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생산라인 감축은 물론, 하루 1천대에 달하는 수출에도 막대한 타격이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삼성전자 광주공장도 13일 광양항의 선적이 중단됨에 따라 컨테이너 230대 분량의 수출제품 운송이 대부분 중단됐다. 삼성공장 측은 생산라인은 정상가동 중이지만 이날 컨테이너 30대 분량만을 부산항으로 운송했을 뿐 제품운송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우일렉트로닉스는 하루 평균 운송 물량인 컨테이너 100여 대의 운송이 전면 중단됐다. 또 향후 생산라인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7월 수출물량 운송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된다. 금호타이어도 컨테이너 40대의 수출용 상품 운송이 전면 중단됐다.

◇전남=광양항 컨테이너 부두에서는 전남지부 소속 일부 조합원들이 대체 운송수단인 야드 트랙터(YT)의 운행을 저지하는 등 하루 평균 5천100TEU(1TEU=컨테이너 1개)이던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700TEU까지 떨어졌다.

물류대란이 현실화되면서 정부는 대체운송 수단 투입과 공권력 발동을 대책으로 내놨지만 이마저도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운수산업노조는 13일 서울 영등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대체수송을 거부한다며 정부가 공권력으로 화물연대를 막는다면 철도와 공항항만 노조도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광주지부 한 관계자는 "정부는 화물연대가 지난달 총파업을 예고했음에도 '운송료 인상은 화주가 결정할 문제'라며 한발 물러나 있었다"며 "이번 파업이 경유가 급등에 따른 생계형 파업인 것을 시민들도 알고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 정부는 5년 전과 같은 대책만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10억대 취업 사기' 현직 경찰 개입

"취업 희망자에 돈 받아 용의자에 전달" 진술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취업을 미끼로 한 대규모 취업사기<본보 6월 13일자 8면> 사건과 관련, 광주 서부경찰서 K모(35) 경장이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광주지방경찰청은 13일 K경장을 상대로 취업 사기 용의자인 선모(36)씨와의 관계와 사건 개입 여부에 대해 감찰 조사를 벌였다.

K경장은 감찰 조사에서 기아차 취업 희망자에게 돈을 받아 사기 사건 용의자인 선모(36)씨에게 한 차례 직접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K경장은 자신이 선씨에게 소개한 기아차 취업 희망자인 A씨가 "선씨를 믿지 못하겠다"고 하자 자신의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이를 선씨에게 건넸다고 밝혔다.

피해자 L모(33)씨는 "K경장이 선씨의 부탁을 받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선씨에게 건넸고,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차용증도 써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K경장은 "선씨가 적법한 과정을 통해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에게 소개만 해줬을 뿐"이라며 공모 혐의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피해자들은 "K경장이 자신들을 선씨에게 소개를 하고 '날 믿어라'라고 말하는 등 사실상 '인우보증'을 섰기 때문에 감쪽같이 선씨에게 속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광주경찰청은 이날 K경장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K경장에 대해 중징계 조치 할 예정이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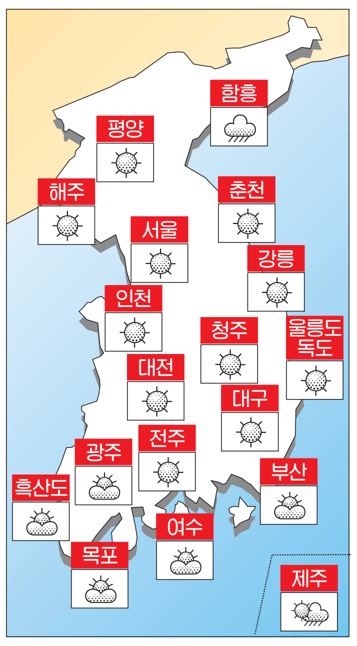
무더운 날씨

고기압 영향을 받겠으며 구름 많이 끼겠다.

6월 14일 (음 5월 11일)

◇전국날씨

광 주	구름 많음	19~30℃
목 포	구름 많음	19~25℃
여 수	구름 많음	19~25℃
완 도	구름 많음	17~27℃
구 례	구름 많음	16~31℃
해 남	구름 많음	16~28℃
장 흥	구름 많음	15~28℃
고 흥	구름 많음	15~28℃
순 천	구름 많음	16~30℃
영 광	구름 많음	17~27℃
진 도	구름 많음	18~28℃
전 주	구름 조금	18~31℃
남 원	구름 조금	15~30℃
흑산도	구름 많음	15~20℃



서해남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0.5~1.0m
먼바다=북동~남동풍 파고 0.5~1.5m
남해서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0.5~1.0m
먼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2.0m

목 포 밀물 10:44 / 23:48 썰물 04:22 / 16:23
여 수 밀물 05:42 / 18:48 썰물 11:56 / --:--

▲해뜸 05:17 ▲해짐 19:48 ▲달뜸 15:58 ▲달짐 01:56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5(일)	16(월)	17(화)	18(수)	19(목)	20(금)
날 씨						
최저/최고	19/28	19/29	19/29	20/26	20/26	19/27

이달 하순 장마 시작

우리나라는 이달 하순께 장마전선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13일 "6월 하순 전국은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흐린 날이 많겠지만 강수량은 예년(48~138㎜)과 비슷하겠으며 기온은 예년(17~23도)보다 다소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7월 상순에는 장마전선이 남북으로 진동하면서 지역에 따라 일시적으로 저온 현상이 나타나는 등 날씨의 변화가 크겠지만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18~25도.49~142㎜)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7월 중순에는 장마전선이 일시적으로 소강상태를 보이면서 기온은 평년(19~26도)보다 높겠으며 강수량은 평년(53~131㎜)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주말·휴일 무더위 계속

13일 광주의 낮 기온이 올 들어 가장 높은 32도까지 치솟는 등 주말(14일)과 휴일(15일)에도 광주·전남지역은 무더운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주말인 14일 광주·전남지역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이 끼고 낮 최고기온이 25~30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13일 예보했다.

휴일인 15일에도 낮 최고 기온이 24도~29도까지 올라가는 등 광주·전남지역은 당분간 3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당분간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넘는 더위가 계속되다 18일 비가 오면서 한풀 꺾일 것이다"고 예보했다.

한편, 13일 정오를 기해 여수시 문수동·삼일동 지역에 올해 두 번째 오존주의보가 내려졌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계속되는 촛불

'故 효순·미선양 6주기' 광주 등 전국서 추모

지난 2002년 미군 장갑차에 깔려 숨진 '고(故) 효순·미선양 6주기 추도행사'가 13일 서울과 광주 등 전국 대도시에서 촛불집회와 함께 열렸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이날 오후 7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재협상을 촉구하는 '제37차 촛불문화제'를 열면서 미군 장갑차에 깔려 숨진 여중생 신효순·심미선양의 추모행사도 함께 치렀다.

이날 촛불문화제에는 재야인사 1천명·대학생 500명·네티즌 1천명·시민 1천명 등을 비롯한 전국노점상연합회와 주한미군 철수 등의 입장을 취해온 시민단체 등 1만명(주최 측 2만명, 경찰추산 7천명)이 문화제에 동참했다.

대책회의는 이번 집회가 60만~70만명(자체 추산)이 모인 '6·10 촛불대행진'에 이어 처음으로 맞는 대규모 행사인 만큼 미국산 쇠고기 반대 운동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됐다고 밝혔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광주·전남 비상시국회의도 이날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일반 시민 등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효순·미선양 6주기 추모행사'와 함께 촛불집회를 열었다.

특히 주말인 14일에는 미국산 쇠고기수입 반대집회에서 분신했다가 숨진 고(故) 이병렬씨의 추모식과 함께 광주시 북구 운정동 옛 망월 묘역에 시신을 안장한 뒤 금남로에서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한편,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광주·전남본부는 13일~15일까지 광주·전남지역에서 '6·15 공동선언 발표 8주년 기념행사'를 연다.

이날 광주극장에서 열린 '6·15 8주년 기념행사 및 북한영화음악콘서트'를 시작으로 15일에는 '광주시민 6.15 km 걷기 대회' '6.15 광산구 통일 한마당' '10·4선언 실천 및 남북관계 개선을 촉구하는 각계인사 선언운동'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된다.

/이종행 기자 golee@·연합뉴스

13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효선·미선양 6주기 추모식' 및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일가족이 촛불을 들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과 관련한 시민들의 자유발언을 듣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촛불집회 음료수·라면 등 지원 쇄도

광주 시민들의 나눔과 공동체 정신이 한 달 넘게 진행되고 있는 광주 금남로 '촛불집회'에 든든한 힘이 되고 있다.

13일 '광우병위험 광주·전남 비상 시국회의'(이하 시국회의)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광주에서 촛불집회가 처음으로 시작된 이후 매일 익명을 요구한 시민과 단체들의 지원물품이 쇄도하고 있다.

마트를 운영하는 한 시민은 지난 10일 열린 6·10 항쟁 21주년 촛불문화제에 참가하면서 자신의 가게에서 팔던 음료수 1천개를 시국회의에 기증했다.

또 광주시 남구 월산동에서 PC게임방을 운영하는 한 시민은 라면 20상자를 구입해 집회 현장에 직접 들고 오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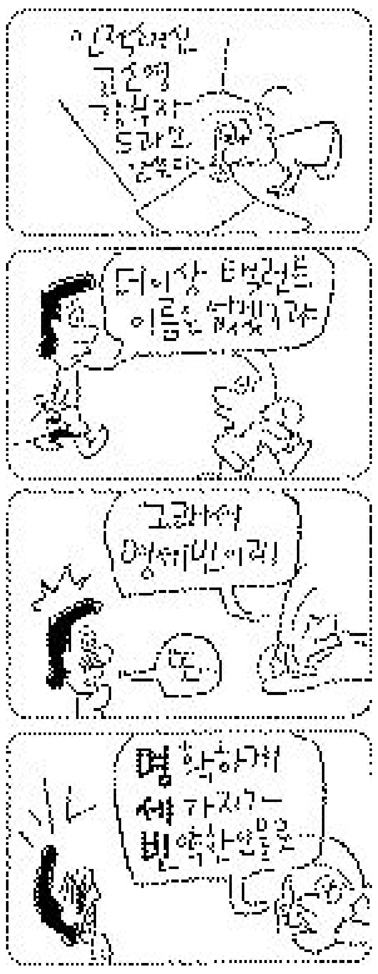
앞서 10일에는 농민회에서 기증한 쌀 20kg짜리 40포대가 시국회의 측에 전달돼 주먹밥으로 만들어져 집회 참가자들에게 제공되기도 했다.

특히 지난 7일에는 청소년 수십명이 자신들이 직접 모은 쌀로 주먹밥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집회 참가자 500여명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의 떡을 기증한 시민도 있었다. 이밖에 광주시 동구 금남로 무등빌딩 앞 노상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시국회의 측에 매일 시민들이 사오는 20~30개씩의 우유와 빵이 답지하고 있다.

비상시국회의 최은순(여·45) 실행위원장은 "지난 80년 5월과 87년 6월의 모습이 다시금 재현된 것 같다"면서 "하나 된 광주의 대동정신은 앞으로도 영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7530〉 김종두



더 좋은 건축·산업자재 KCC
(주)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샤시 제작 및 상담환영
▶서울본사 : 02) 3445-0943
▶나주공장 : 061) 337-0571

어린이집 뒷마당서 영아 시신 발견

13일 오전 7시께 광주시 서구 한 어린이집 뒷마당에서 갓 태어난 여자 아이의 시신이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겨 묻혀 있는 것을 어린이집 원장 K(여·67)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K씨는 경찰에서 "뒷마당 텃밭을 매는데 땅 속에서 비닐봉지가 나와 살펴보니 아기의 시신이 들어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아기가 숨진 지 1주일 정도 된 것으로 추정하고 아기를 유기한 사람을 찾기 위해 탐문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종행 기자 golee@

상습 빈집털이 검거

광주북부경찰은 13일 광주와 나주지역 주택가의 빈집 등을 대상으로 금품을 털어온 장모(24)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김모(15)군 등 중·고교생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장씨 등은 지난달 15일 광주시 북구 문흥동에 사는 김모(여·39)씨의 집에 들어가 현금 70만원을 몰래 훔쳐 나오는 등 최근까지 17회에 걸쳐 광주와 나주 일대에서 43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혈중알코올 0.163% 무죄 이유는

쌍나팔

○…법원이 음주운전자의 혈액채취 과정에서 알코올 솜을 사용했다면 음주운전 범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

○…광주지법 형사2단독 최영남 판사는 13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0)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혈액채취 방법이 잘못 됐다"며 무죄를 선고.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간호사가 채혈 부위를 알코올 솜으로 소독했는데, 주사기가 피부를 뚫을 때 알코올이 주사기 안으로 들어가거나 채취된 혈액에 흡수된 경우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판시.

○…김씨는 지난 2006년 맥주 1캔을 마시고 화순군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병원에 입원했고, 경찰이 간호사를 통해 김씨의 혈액을 채혈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63%가 나와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데 불복, 재판을 청구.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